

'동학농민혁명 정신' 태권도에 담다

창작 태권 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 전주서 열려... 2036 전북 올림픽 유치 기원 의미도 담아

전통 무예와 국악, 그리고 역사를 결합한 창작 태권 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가 지난 2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성황리에 공연됐다. 이번 공연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배경으로 민초들의 삶과 희망을 조명하며, 현대인들에게 '꿈'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민초들의 이야기를 태권도와 국악의 장단에 맞춰 풀어낸 작품이다. 고장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씨가 부안 백산 전투, 정읍 황토현 전투, 전주 입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웅장한 무대 연출과 함께 생생하게 펼쳐졌다.

총 70분간 진행된 공연에서는 전통 농악과 국악 장단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역사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했다. 특히, 태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격파 기술, 그리고 절도 있는 군무가 어우러지며 동학군의 치열했던 투쟁을 강렬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번 공연의 핵심은 우석대학교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의 태권도 시범단이였다. 이들은 오랜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동작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동학농민군의 뜨거운 외침과 투쟁의 순간을 실감 나게 재현했다.



전통 무예와 국악, 그리고 역사를 결합한 창작 태권 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가 지난 2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성황리에 공연됐다.

공연에서는 태권도의 다양한 품새와 겨루기 동작은 물론, 고난도 격파 기술과 칼군무까지 더해지며 압도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특히, 촛불을 활용한 동학군의 연대 표현과 미래 시대의 전봉준 혼(魂)의 등장 장면은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

명 130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동시에,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되었다. 전북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태권유랑단 녹두. 이번 무대를 발판으로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전북도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작가회의는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통해 제17회 '불꽃문학상'과 제15회 '작가의 눈 작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작가회의, 정기총회·시상식 개최

'불꽃문학상' 이준호 소설가·'작가의 눈 작품상' 김근혜 아동문학가 수상

전북작가회의(회장 유강희)는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통해 제17회 '불꽃문학상'과 제15회 '작가의 눈 작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꽃문학상은 치열한 시대 정신과 문학 정신으로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들을 엄선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장편소설 "조선사람 무라야마데오"의 저자인 이준호 소설가가 영예를 안았다. 이준호 소설가는 9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되었고 이듬해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았다.

또한, 작가의 눈 작품상은 전북작가회의 회원들의 치열한 작가경쟁을 일깨우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동화 '비개척 행성 퀘스트'의 저자인 김근혜 아동문학가가 선정되었다. 김근혜 아동문학가는 201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동

화 '선물'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전북작가회의는 2025년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추진해 나갈 자체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는 작가들의 함께 걷는 문학 산책, 여름 시인 학교, 2025 전북 초중고 백일장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직접적 소통으로 전북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전북작가회의는 현재 261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이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약 100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전주 벚계기전에서 열렸다.

전북작가회의의 유강희 회장은 "앞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문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중에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실감미디어 기반 문화관광 산업 발전 가능성 모색

전주대, 제2회 실감형 문화관광 자산학 얼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21~22일 양일간 '제2회 실감형 문화관광 자산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문화도시 실감형 문화관광'을 주제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실감미디어 자산학 얼라이언스의 정기 세미나로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계명대, 배재대, 계원예대 등 7개 대학과 전주문화재단, 산업계 등이 함께 모여 실감미디어 기반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추진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

하며,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도시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실감미디어 기반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실감형 문화관광 자산학 얼라이언스 추진 방향과 전략(전주대 박형웅 연구교수) △미래문화도시 전주(전주문화재단 김선정 문화도시TF팀장) △문화관광 관련 실감 콘텐츠에 대한 지역 혁신 사례(씨티데이즈의 송대규 대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텔로스의 황근별 대표와 대구에서 유희공간을 실감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루프세터의 노현태 대표가 각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아울러,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기업인 비트리의 백성은 대표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실감형 문화콘텐츠 구축이 미래문화도시 구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과 실감형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21~22일 양일간 '제2회 실감형 문화관광 자산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창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심의·의결

고창군이 24일 고창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22년 12월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올해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참석한 위원들은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특히 문화도시 3년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도시 5개년 사업으로 3년차가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2년간 내실있게 쌓



아온 문화도시 사업들을 토대로, 3년차에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구현하기 위한 약 20개의 세부사업들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형회경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